

# 보건복지 제465호 (2026-06)

##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5. 6. ISSN 2092-7117

##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 변화

김은정B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를 비교한 것임. 코로나19 이후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남녀 장애인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는데, 비정규직, 시간제, 정부재정 지원 일자리 등 불안정한 공공근로·복지 일자리 중심이었음.
- 코로나19 이후 남녀 장애인 모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1인 또는 영세 자영업 중심임을 시사함.
- 남녀 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성 장애인 고용률이 여성 장애인 고용률보다 약 2배 높음. 정규직·전일제·일반 사업체 근무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하여야 함.

### 01. 서론

- ◆ ‘그동안 남녀 고용 실태를 비교한 연구는 많았으나(정성미 외, 2025; 신선미 외, 2021; 김난주, 이선행, 2020), 여성 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남녀 장애인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적었음(김은정, 2022; 연명모 외, 2015; 전기택 외, 2017).
-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안정 측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 있음(Kim et al, 2019).

- 여성 장애인은 성별에 따른 돌봄 책임 및 고용 차별, 장애로 인한 접근성 제약과 생산성에 대한 편견이 중첩되면서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이원진 외, 2023). 이에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장애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장기적 변화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장애인은 돌봄 부담,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공공 일자리 의존 등 구조적 특성이 결합된 집단으로,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해 다른 집단과 상이한 고용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확산기(2020~2022년)<sup>1)</sup>, 이후(2023~2025년)로 나누어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7~2025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함.**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1만 1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국가 승인 통계임. 그동안 매년 5~7월에 실시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반기 단위 조사로 전환되어 상반기(5~7월)와 하반기(10~12월)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분석 시기의 일관성을 위해 2022~2025년 자료는 상반기 것만을 활용함.

## 02.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률 변화

◆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고용률이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장애인 평균 고용률: (코로나 이전) 45.5% →(확산기) 44.6%→(이후) 43.1%
- 여성 장애인 평균 고용률: (코로나 이전) 21.4% →(확산기) 22.7%→(이후) 23.2%

1)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월부터 대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됨. 이에 2020년을 코로나 확산기 시작 연도로 설정함.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함.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매년 5~7월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를 코로나 확산기 종료 연도로 설정함.

〈표 1〉 남녀 장애인 고용률

(단위: %, %P)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36.5	34.5	34.9	35.3	34.9	34.6	36.4	35.3	36.1	33.9	34.0	34.7
남성	46.8	44.1	45.6	45.5	43.9	43.8	46.2	44.6	45.4	42.3	41.5	43.1
여성	22.4	21.4	20.3	21.4	22.7	22.2	23.1	22.7	23.5	22.3	23.8	23.2
격차	24.4	22.7	25.3	24.1	21.2	21.6	23.1	21.9	21.9	20	17.7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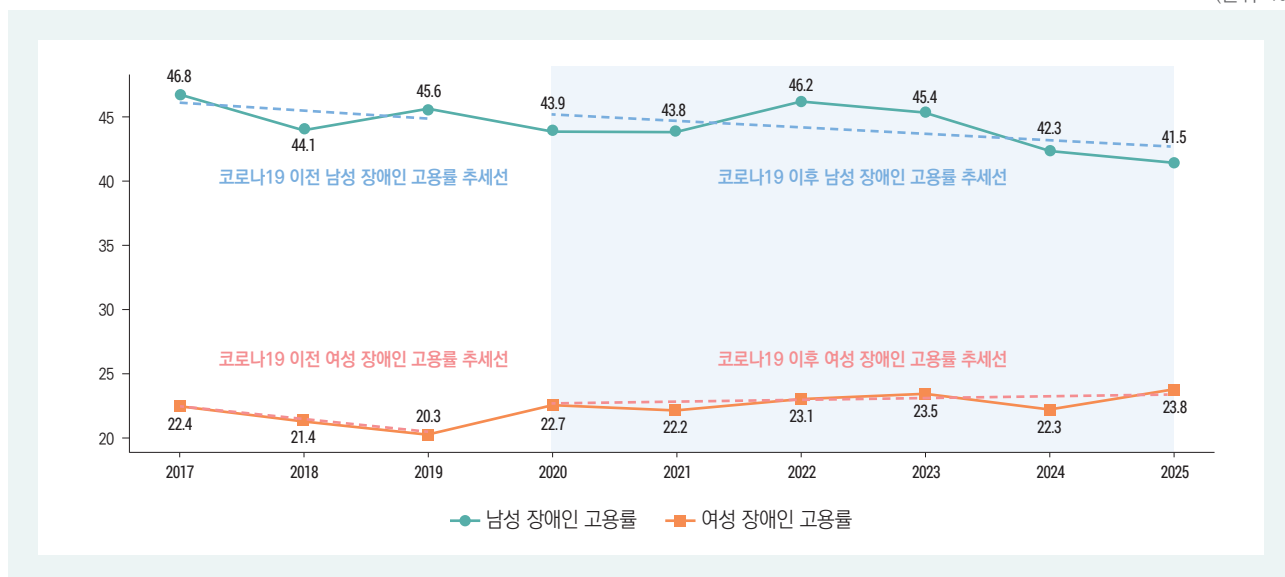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관찰된 변화가 코로나19 시기의 영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추세의 일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초테스트(Chow test)<sup>2)</sup>를 함.

- 분석 결과 남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시점(2020년)을 기준으로 추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고용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단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감소 추세가 지속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여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시점(2020년)을 기준으로 추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여성 고용 추세가 변화했음을 의미하며, 코로나19가 여성 고용 변화의 전환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코로나19 이전 여성 고용률은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뀜.

[그림 1] 남녀 장애인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2) 서로 다른 기간을 사용하여 두 선형회귀모형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동일하지, 상이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2020년)을 기준으로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7~2019년과 2020~2025년으로 구분하여 회귀계수를 비교·분석함.

### 03.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취업 실태 변화

◆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중이 더 높음.

- 2017~2025년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 평균 비중은 75.0%로, 남성 장애인 6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코로나19 이후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여성 장애인 증가폭(7.1%포인트, 71.2%→78.3%)이 남성 장애인 증가폭(2.5%포인트, 67.1%→69.6%)보다 더 크게 나타남.

〈표 2〉 근로 형태에 따른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단위: %)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b>전체</b>												
임금	65.6	67.7	71.2	<b>68.1</b>	69.5	69.4	69.3	<b>69.4</b>	71.2	72.8	72.1	<b>72.0</b>
비임금	34.4	32.3	28.8	<b>31.9</b>	30.5	30.6	30.7	<b>30.6</b>	28.8	27.2	27.9	<b>28.0</b>
<b>남성 장애인</b>												
임금	64.6	66.9	69.8	<b>67.1</b>	67.8	67.5	66.0	<b>67.1</b>	68.8	70.8	69.1	<b>69.6</b>
비임금	35.4	33.1	30.2	<b>32.9</b>	32.2	32.5	34.0	<b>32.9</b>	31.2	29.3	30.9	<b>30.5</b>
<b>여성 장애인</b>												
임금	68.4	69.8	75.5	<b>71.2</b>	74.1	74.4	78.2	<b>75.6</b>	77.7	78.0	79.2	<b>78.3</b>
비임금	31.6	30.2	24.5	<b>28.8</b>	25.9	25.6	21.8	<b>24.4</b>	22.3	22.0	20.8	<b>21.7</b>

주: 각 범주의 합은 100.0%(임금+비임금)임.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여성의 정규직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2025년 남성 장애인의 정규직 평균 비중은 43.1%, 여성 장애인은 21.0%로 나타나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정규직 비중이 5.9%포인트(46.3%→40.4%)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5.3%포인트(24.2%→18.9%) 감소함.
-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임.

〈표 3〉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에 따른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정규직 vs 비정규직)

(단위: %)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비정규직	59.4	59.4	60.0	<b>59.6</b>	59.4	67.8	64.9	<b>64.0</b>	67.3	67.0	64.5	<b>66.3</b>
정규직	40.6	40.6	40.0	<b>40.4</b>	40.6	32.2	35.1	<b>36.0</b>	32.7	33.0	35.5	<b>33.7</b>
남성 장애인												
비정규직	55.3	54.3	51.6	<b>53.7</b>	51.5	61.8	58.4	<b>57.2</b>	60.5	60.2	58.2	<b>59.6</b>
정규직	44.7	45.7	48.4	<b>46.3</b>	48.5	38.2	41.6	<b>42.8</b>	39.5	39.8	41.8	<b>40.4</b>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70.5	73.2	83.7	<b>75.8</b>	78.5	82.5	79.7	<b>80.2</b>	83.0	82.8	77.5	<b>81.1</b>
정규직	29.5	26.8	16.3	<b>24.2</b>	21.5	17.5	20.3	<b>19.8</b>	17.0	17.2	22.5	<b>18.9</b>

주: 각 범주의 합은 100.0%(임금+비임금)임.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 전일제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이 확연히 더 높음.

- 2017~2025년 남성 장애인의 전일제 평균 비중이 71.0%로, 여성 장애인(38.8%)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남성은 7.5%포인트(74.9%→67.4%), 여성은 10.5%포인트(44.4%→33.9%) 감소하여 여성의 전일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표 4〉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에 따른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전일제 vs 시간제)

(단위: %)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전일제	68.1	66.8	65.3	<b>66.7</b>	63.1	61.9	58.2	<b>61.1</b>	55.3	58.2	57.6	<b>57.0</b>
시간제	31.9	33.2	34.7	<b>33.3</b>	36.9	38.2	41.8	<b>39.0</b>	44.7	41.8	42.4	<b>43.0</b>
남성 장애인												
전일제	75.1	74.7	74.8	<b>74.9</b>	73.2	70.2	69.0	<b>70.8</b>	65.8	67.8	68.6	<b>67.4</b>
시간제	24.9	25.3	25.2	<b>25.1</b>	26.8	29.8	31.0	<b>29.2</b>	34.2	32.2	31.4	<b>32.6</b>
여성 장애인												
전일제	49.3	45.5	38.4	<b>44.4</b>	38.7	41.6	33.7	<b>38.0</b>	31.1	35.7	35.0	<b>33.9</b>
시간제	50.8	54.5	61.6	<b>55.7</b>	61.3	58.4	66.3	<b>62.0</b>	68.9	64.3	65.0	<b>66.1</b>

주: 각 범주의 합은 100.0%(임금+비임금)임.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근무 사업체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대다수(70~83%)가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장애인은 그보다 낮은 48~65%가 일반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장애인은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예: 공공근로, 복지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비중(21~40%)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일반 사업체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정부 지원 일자리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보호된 노동시장 의존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장애인의 경우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80.8%였으나, 확산기에는 평균 75.7%, 종료 이후에는 평균 71.9%로 감소함. 반면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는 7.1%→11.1%→15.5%로 증가함.
  - 여성 장애인도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59.6%였으나, 확산기에는 평균 53.9%, 종료 이후에는 평균 50.4%로 감소함. 반면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는 23.8%→33.0%→35.4%로 증가함.

〈표 5〉 임금근로자: 근무 사업체 유형에 따른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

(단위: %)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b>전체</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4	4.0	4.0	<b>4.1</b>	3.2	4.2	4.6	<b>4.0</b>	5.4	4.9	5.3	<b>5.2</b>
정부 재정 지원	10.9	10.3	13.5	<b>11.5</b>	14.3	18.6	20.0	<b>17.6</b>	20.2	22.1	22.7	<b>21.7</b>
정부 및 공공기관	7.8	8.7	10.9	<b>9.1</b>	12.4	8.9	6.3	<b>9.2</b>	8.0	8.8	6.9	<b>7.9</b>
그 외 일반 사업체	76.9	77.1	71.6	<b>75.2</b>	70.1	68.3	69.0	<b>69.1</b>	66.5	64.2	65.1	<b>65.3</b>
<b>남성 장애인</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7	3.5	3.9	<b>3.7</b>	3.1	4.3	4.1	<b>3.8</b>	4.5	4.6	5.1	<b>4.7</b>
정부 재정 지원	7.1	6.3	7.8	<b>7.1</b>	8.9	13.2	11.2	<b>11.1</b>	15.3	15.6	15.6	<b>15.5</b>
정부 및 공공기관	6.0	8.5	10.7	<b>8.4</b>	12.0	9.2	7.0	<b>9.4</b>	8.3	9.5	5.9	<b>7.9</b>
그 외 일반 사업체	83.2	81.7	77.6	<b>80.8</b>	76.0	73.2	77.8	<b>75.7</b>	71.9	70.4	73.4	<b>71.9</b>
<b>여성 장애인</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3	5.3	4.5	<b>5.3</b>	3.3	4.0	6.0	<b>4.4</b>	7.6	5.8	5.8	<b>6.4</b>
정부 재정 지원	21.1	20.9	29.6	<b>23.8</b>	27.2	31.6	40.3	<b>33.0</b>	31.5	37.3	37.3	<b>35.4</b>
정부 및 공공기관	12.7	9.4	11.5	<b>11.2</b>	13.4	8.0	4.7	<b>8.7</b>	7.3	7.2	9.1	<b>7.9</b>
그 외 일반 사업체	59.9	64.5	54.5	<b>59.6</b>	56.1	56.4	49.1	<b>53.9</b>	53.7	49.7	47.9	<b>50.4</b>

주: 1) 각 범주의 합은 100.0%(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정부 재정 지원+정부 및 공공기관+그 외 일반 사업체)임.

2)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예시: 보호적업장, 근로사업장 등 ②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예시: 공공근로, 복지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③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예시: 공무원, 교사 등.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 남녀 장애인 시간당 임금<sup>3)</sup>을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이 여성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2025년 남성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약 1만 6800원(2025년 6월 실질임금 기준), 여성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약 1만 2100원(2025년 6월 실질임금 기준)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 남성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약 1만 6300원,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약 1만 7000원,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1만 7200원으로 증가함.
- 여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에 소폭 감소한 이후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여성 장애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1만 2000원→약 1만 1900원→약 1만 2400원으로 변화함.

〈표 6〉 임금근로자: 남녀 장애인 시간당 임금

(단위: 만 원, 2025년 6월 실질임금 기준)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1.47	1.46	1.61	<b>1.51</b>	1.54	1.50	1.61	<b>1.55</b>	1.57	1.55	1.58	<b>1.57</b>
남성	1.60	1.58	1.70	<b>1.63</b>	1.70	1.64	1.78	<b>1.70</b>	1.72	1.69	1.73	<b>1.72</b>
여성	1.14	1.13	1.34	<b>1.20</b>	1.19	1.16	1.24	<b>1.19</b>	1.23	1.23	1.26	<b>1.24</b>
격차	0.46	0.45	0.36	<b>0.43</b>	0.51	0.48	0.54	<b>0.51</b>	0.49	0.46	0.47	<b>0.48</b>

주: 1) 월 평균 임금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눔.

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5~7월에 이루어지므로 물가 변동에 따른 명목임금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임금을 제시함.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에 따른 남녀 장애인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 72~79%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적은 52~63%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비중도 25~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1인 또는 영세 자영업 중심의 자영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남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2017~201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평균 22.0%였으나, 코로나19 확산기(2020~2022)에는 평균 20.6%, 코로나19 이후(2023~2025)에는 평균 20.4%로 감소함.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2.1%→75.0%→76.9%로 증가함.
  - 여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2017~201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평균 13.9%였으나, 코로나19 확산기(2020~2022)에는 평균 12.3%, 코로나19 이후(2023~2025)에는 평균 11.8%로 감소함.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55.7%→56.6%→59.1%로 증가함.

3) 물가 변동에 따른 명목임금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임금을 제시함.

〈표 7〉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에 따른 남녀 장애인 취업 실태

(단위: %)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b>전체</b>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1.1	18.6	20.6	<b>20.1</b>	21.2	14.6	20.7	<b>18.8</b>	18.7	18.2	18.6	<b>18.5</b>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8.4	67.5	69.2	<b>68.4</b>	67.9	73.7	71.0	<b>70.9</b>	74.2	72.7	72.0	<b>73.0</b>
무급가족종사자	10.6	13.9	10.2	<b>11.6</b>	10.9	11.7	8.3	<b>10.3</b>	7.1	9.1	9.4	<b>8.5</b>
<b>남성 장애인</b>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3.9	20.2	21.8	<b>22.0</b>	22.4	16.7	22.6	<b>20.6</b>	20.4	19.8	20.9	<b>20.4</b>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2.1	71.7	72.6	<b>72.1</b>	72.7	79.3	72.9	<b>75.0</b>	78.1	77.0	75.6	<b>76.9</b>
무급가족종사자	4.0	8.1	5.6	<b>5.9</b>	4.9	4.0	4.4	<b>4.4</b>	1.6	3.3	3.5	<b>2.8</b>
<b>여성 장애인</b>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9	13.6	16.0	<b>13.9</b>	17.1	7.5	12.3	<b>12.3</b>	12.3	12.7	10.5	<b>11.8</b>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6.4	54.6	56.3	<b>55.7</b>	52.3	54.7	62.9	<b>56.6</b>	60.0	58.3	59.1	<b>59.1</b>
무급가족종사자	31.7	31.8	27.7	<b>30.4</b>	30.6	37.8	24.8	<b>31.1</b>	27.7	29.1	30.4	<b>29.1</b>

주: 각 범주의 합은 100.0%(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임.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 남녀 장애인의 월평균 사업소득(순수입)<sup>4)</sup>을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사업소득이 여성 장애인보다 높음. 특히 코로나19 확산기에 격차가 크가 벌어졌으나, 종료 이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약 103만 6000원→약 134만 8000원 →약 97만 원).

- 코로나19 전후 남성 장애인의 사업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가장 정점이었던 2021년 사업소득(월평균 229만 7000원)이 가장 낮았음. 이후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함.
- 여성 장애인의 경우도 코로나19가 가장 정점이었던 2021년 사업소득(월평균 105만 5000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후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함.

〈표 8〉 비임금근로자: 남녀 장애인 월평균 사업소득(순수입)

(단위: 만 원, 2025년 6월 실질임금 기준)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확산기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평균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250.0	210.8	252.1	<b>237.7</b>	233.4	209.5	269.1	<b>237.3</b>	220.7	253.5	220.3	<b>231.5</b>
남성	272.8	230.9	266.5	<b>256.7</b>	258.9	229.7	288.8	<b>259.1</b>	235.2	273.3	234.3	<b>247.6</b>
여성	150.7	124.2	184.5	<b>153.1</b>	110.1	105.5	157.3	<b>124.3</b>	150.7	158.1	143.1	<b>150.6</b>
격차	122.1	106.7	82.0	<b>103.6</b>	148.8	124.2	131.5	<b>134.8</b>	84.5	115.2	91.2	<b>97.0</b>

주: 1) 최근 3개월 기준 월평균 순수입(세금 공제 전)임.

2)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함.

3)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5-7월에 이루어지므로 물가 변동에 따른 명목소득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제시함.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2025, 원자료.

4) 물가 변동에 따른 명목소득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제시함.

## 04.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 이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고용 실태 변화를 살펴봄. 분석 결과 남녀 장애인의 고용 경로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양상을 보임.
  - 코로나19 시기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함.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이어져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남성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사업체 및 자영업자로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 더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반면 여성 장애인은 임금근로자, 특히 정부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코로나19 기간 확대된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관계부처합동, 2021. 3. 26.)가 여성 장애인의 고용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 존재함. 특히 해당 일자리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확대가 코로나19 이후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 재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를 2022년에 추가로 2500명 확대하고,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도 2021년 3.4%에서 2024년까지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발표함(관계부처합동, 2021. 3. 26.).
  - 2021년 8월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 49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 대상 인원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함(고용노동부, 2021. 8. 2.).
  -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는 민간 노동시장과 자영업 중심의 취업 구조를 보였던 남성 장애인에게는 고용 흡수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 있음. 그 결과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은 늘었으나, 실제로는 비정규직(남 5.9%포인트, 여 5.3%포인트 증가) 및 시간제 근로(남 7.5%포인트, 여 10.4%포인트 증가) 위주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그 자리를 채움.
  - 이에,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 설계 시 단순한 고용률 제고를 넘어 고용의 질(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안정성 등) 개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일자리 수 늘리기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유도, 근로시간 안정성 확보 등 질적 지표 관리를 강화해야 함. 또한 정부 재정 일자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를 거치며 남녀 모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이후 1인 또는 영세 자영업 중심으로 자영업이 증가했음을 시사함.**

- 남녀 장애인 모두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 사업소득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남.
-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장애인 자영업자가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융자 지원을 넘어 업종 전환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일자리는 여전히 제조업·건설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김은정, 2022). 이에 4차산업 중심의 직업교육 및 사업 설명회 확대,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적합한 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이 필요함.

◆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여성 장애인보다 약 2배 높고, 시간당 임금은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근무 비중은 약 1.4배, 시간제 근무 비중은 약 2.1배,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약 2.0배 남성 장애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명모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육아 및 가사 부담” 순으로 나타남.
- ‘장애’와 ‘성별’이라는 중첩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정부 재정 일자리가 여성 장애인의 주요 통로가 된 만큼 이를 민간 정규직으로 연결하는 사다리 프로그램(브리지 일자리)을 강화하여야 함.

◆ **이상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이 고용률 제고를 넘어 고용의 질 개선과 성별 노동시장 구조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함.**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8. 2.). **[2차 추경]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49억 증액**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549](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549)
- 관계부처합동. (2021. 3. 26.).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069](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069)
- 김난주, 이선행. (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브리프, 59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정. (2022).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선미, 오은진, 정성미. (2021). **코로나19 이후 여성 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과제. 젠더리뷰, 61호(여름호)**, 11-19.
- 이원진, 함선유, 이주미. (2023).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명모, 문유경, 김영애. (2015).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전기택, 이선행, 김영애. (2017). **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성미, 강민정, 김효경, 김현경. (2025). **저출생 시대의 여성 노동시장 특징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im, E. J., Parish, S., & Skinner, T. (2019). The impact of gender and disability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disabled women in the United Kingdom: A longitudinal study between 2009 and 2014.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53(7), 1064-1080.

집필 김은정B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386